

油價下落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産業研究院 -

마침내 國際石油市場에서 브렌트(Brent), 西部텍사스產 中質油(WTI) 등 일부 油種의 現·先物油價가 배럴당 20달러 이하로 폭락했다. OPEC(石油輸出國機構)와 非OPEC 產油國間의 市場쟁탈전이 첨예화되면서 市場정세에 민감한 브렌트이나 WTI 등 일부 現物油價에 선도된 하락세가 全油種에 폭넓게 파급, 巴야흐로 低油價시대에 돌입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향후 油價의 향방은 OPEC이 증산정책을 강행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런데 OPEC이 증산을 강행하더라도 내외여건상 장기간 지속하기 어려워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 생산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非OPEC의 石油생산에도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平均油價는 今年 중 전년보다 배럴당 5달러 정도 하락한 20~22달러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OPEC이 增產政策을 고수할 경우 20달러 이하로 폭락할 가능성도 높다.

油價하락은 產油國經濟難 가중, 開途國 외채위기의 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세계경제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이다. 국제原油價가 배럴당 5달러 하락시 선진국 성장율은 0.5~0.8% 포인트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율은 1% 이상 하락 요인이 발생하고, 세계교역량도 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現物油價, 배럴당 20달러 이하로 폭락

최근 세계 주요 石油市場에서 現物油價의 하락

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일부 油種의 경우 油價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배럴당 20달러 이하로 폭락하였다.

런던市場의 경우 世界石油情勢를 가장 잘 반영하는 北海產 브렌트(Brent) 油 現物價格(3월 인도분)은 去年 11월 말 배럴당 30.70달러를 피크로 하락세로 반전된 뒤 마침내 去年 1월 20일에는 19.80달러를 기록, 20달러 線을 돌파하였으며 1월 31일에는 18.10달러까지 폭락하였다. 불과 두달 사이에 무려 배럴당 12달러나 하락하여 去年 79년 2次 석유위기 이후 최저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美國 뉴욕商品去來所(NYMEX)에서 原油現物價도 마찬가지로 폭락세를 나타내었다. 去年 11월 말에 배럴당 31.80달러까지 상승하였던 西部텍사스產 中質油(WTI) 現物價는 1월말 현재 18.85달러로 무려 13달러나 하락하였다.

이처럼 國際原油價를 선도하는 現物油價가 폭락함에 따라 많은 產油國들이 自國產 原油 수출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重質油價를 배럴당 3달러 인하한 것을 비롯 이집트, 오만 등이 유가를 인하하였고, 美國의 주요 石油會社들도 WTI 구매가격(posted price)을 배럴당 25달러 전후로 2.5~3달러 인하하였다. 특히 멕시코는 重質油價를 배럴당 3.85달러, 輕質油價를 5.02달러나 대폭 인하하였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산유국들도 곧 油價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交역비중이 높은 中東產 原油의 現물가격은 비교적 市場정세에 빨리 반응하지 않아 25~27달러 선으로 배럴당 1달러 전후의 소폭하락에

(表 - 1) 自由世界 石油需給¹⁾ 추이 및 전망

(單位 : 萬B/D)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消 費								
O E C D	2,938	2,995	2,933	2,953	2,997	3,044	3,102	3,126
O P E C	440	450	457	474	501	531	557	582
非產油개국	891	916	919	937	974	1,012	1,051	1,086
合 計	4,269	4,361	4,309	4,364	4,472	4,587	4,710	4,794
供 給								
O E C D	1,593	1,674	1,705	1,705	1,699	1,691	1,674	1,655
O P E C	1,757	1,757	1,580	1,618	1,699	1,802	1,930	2,021
非OPEC개국	684	735	778	804	826	847	866	883
對共產圈純輸入	103	116	93	114	113	118	117	116
合 計 ²⁾	4,270	4,361	4,309	4,364	4,472	4,587	4,710	4,794

註 : 1) NGL 포함.

2) 在庫增減으로 合計는 一致하지 않음.

〈資料〉WEFA, World Economic Outlook, Dec. 1985.

그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油種의 하락세도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產油國間 市場爭奪戰이 유가폭락 야기

이처럼 油價가 견잡을 수 없이 폭락하게 된 것은 OPEC과 非OPEC 產油國間에 시장쟁탈전이 불붙었기 때문이다.

OPEC은 두차례의 石油波動 이후 非OPEC 產油國의 石油생산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非OPEC 產油國들에게 시장을 크게 잠식당해 왔다. 自由世界 總石油생산에서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년 60%에서 85년 39%로 감소하였다.

마침내 OPEC은 지난해 12월초 정기총회에서 더 이상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계 石油시장에서 OPEC의 공정한 시장점유율을 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產油量 제한으로 油價하락을 방지한다는 기존 OPEC 石油政策을 전환하여 油價가 하락하더라도 非OPEC에게 시장을 더 이상 잠식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산유량을 크게 늘려 油價를 폭락시키는 價格戰爭(price war)을 일으킴으로써 非OPEC 產油國들을 위협, 非OPEC의 석유증산정책에 쐐기를 박아 유가하락도 방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실

제로 OPEC의 산유량은 지난해 말부터 크게 증가 1월말 현재 생산한도인 하루 1,600萬 배럴을 240萬 배럴이나 초과하는 1,840萬 배럴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OPEC의 의도와는 달리 非OPEC 산유국의 석유증산정책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非OPEC산유국의 대표격인 英國의 대처수상은 英國이 산유량을 감축할 의사가 없음을 단호히 표명한 바 있다. 단지 노르웨이는 英國이나 OPEC이 감산을 한다면 노르웨�티도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집트는 산유량을 하루 10~15萬배럴 감축한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은 수출부진으로 現 생산수준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OPEC생산증가→유가하락→非OPEC 產油國생산감축→油價안정을 기도한 OPEC의 의도와는 달리 非OPEC 產油國 증산 고수로 유가만 폭락시킨 결과를 낳고 있다.

油價, 金년중 평균 배럴당 5달러 하락 전망

지금의 혼란한 국제石油정세를 감안할 때 국제 石油價가 어느 정도 하락할지 가늠하기란 극히 어

〈表 - 2〉 展望機關別 油價 전망

(單位: \$ / B)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W E F A	29.83	29.09	28.06	26.45	26.22	26.22	26.25	26.25
D R I	29.56	28.58	27.59	25.67	23.85	24.88	—	—
N I E S R	27.75	28.86	28.28	28.28	28.28	—	—	—
O E C D	29.29	28.16	26.47	25.92	25.92	—	—	—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Dec. 1985.

DRI, European Review, Jan. 1986.

NIES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Nov. 1985.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 1985.

러운 상황이지만 대체로 금년중 지난해보다 평균 배럴당 5달러 가량 하락한¹⁾ 20~22달러²⁾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OPEC이 시장점유율을 하루 1,800萬 배럴 정도로 책정하여 이 수준으로 생산을 지속할 경우, 실제로 油價는 배럴당 13~15달러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① 非OPEC 산유국들의 石油증산정책에 변화가 올 수 있으며, ② 그렇지 않더라도 생산비용이 높은 非OPEC 산유국들의 감산이 불가피하고, ③ OPEC국가중 인구가 많고 자원이 빈약한 빈국이 경제난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감산에 의한 油價회복을 주장할 것이 예상되므로 OPEC이 증산정책을 장기간 지속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油價는 다시 20달러 이상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OPEC이 다시 산유량을 제한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즉, OPEC은 油價를 폭락시켜 非OPEC 產油國으로 하여금 감산하게 만든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견디기 힘든 일임을 깨닫고, 종래의 산유량 제한정책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油價는 앞의 경우보다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사우디가 OPEC국가중 貧國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증산정책을 강행하고 非OPEC 산유국들도 OPEC의 감산압력을 묵살하여 증산한다면 시장쟁탈전에 의한 공급과잉은 견잡을 수 없게 되어 아마니 사우디石油相의 예상처럼 油價는 배럴당 15달러 이하로 폭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油價하락, 세계경기회복에 활력소

油價하락은 86년 들어 뚜렷한 경기회복요인이 없

〈表 - 3〉 油價下落이 開途國에 미치는 影響

(배럴당 20달러로 하락시)

(單位: 百萬달러)

產油開途國	石油收入	利子輕減	綜 合	非產油開途國	石油輸入減少	利子輕減	綜 合
나이지리아	- 4,500	+ 345	- 4,155	브 라 질	2,407	2,300	4,707
베네수엘라	- 4,252	+ 690	- 3,562	한 국	1,462	690	2,152
인도네시아	- 3,555	+ 391	- 3,164	터 어 키	1,282	310	1,592
멕시코	- 4,140	+ 1,840	- 2,300	아르헨티나	0	805	805
알제리	- 1,665	+ 299	- 1,366	필 리 핀	472	207	679
에콰도르	- 504	+ 179	- 325	칠 레	270	368	638

〈資料〉 American Express Bank, The Amex Bank Review, May 1985.

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촉진시킬 강력한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油價하락은 우선 연료 및 石油類 제품가격의 하락은 물론 이를 원료로 투입하는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게 된다.

油價하락은 또한 선진국 및 非產油開途國의 石油수입부담을 줄여 이들의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 油價가 평균 배럴당 5 달러 하락할 경우 OPEC의 石油輸出收入은 연간 260억달러³⁾가 감소하나 이중 2/3는 선진국, 나머지 1/3이 非產油開途國의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성장면에서 보면, ① 인플레이션 둔화로 소비자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消費가 늘어나며, ②

〈表 - 4〉 油價下落的 파급효과¹⁾(유럽 4 大國의 경우)

	1985	1986	1987	1988
獨逸				
성장효과(%포인트)	0.0	1.0	1.9	1.3
소비자물가(%포인트)	0.0	-0.5	-0.6	-0.6
경상수지개선(10억DM)	0.3	15.28	-0.32	1.20
실효환율	0.0	0.9	2.0	1.8
프랑스				
성장효과(%포인트)	0.0	0.1	0.6	1.3
소비자물가(%포인트)	0.0	-1.1	-3.0	-3.1
경상수지개선(10억F.Fr)	0.05	40.93	-5.20	-36.45
실효환율	0.0	2.1	3.7	1.3
英國				
성장효과(%포인트)	0.0	0.5	0.7	0.4
소비자물가(%포인트)	0.0	0.5	0.8	1.7
경상수지개선(10억 £)	0.0	-28.2	-139.2	-10.8
실효환율	0.0	-4.2	-4.7	-4.1
이탈리아				
성장효과(%포인트)	0.0	0.4	1.1	1.2
소비자물가(%포인트)	0.0	-0.6	-1.5	-1.5
경상수지개선(1 조 Lit)	0.0	5.26	1.78	-2.21
실효환율	0.0	1.3	3.6	4.4

註 : 1) 油價가 85년 27.6\$/b에서 86년 25.7\$/b, 87년 23.8\$/b, 88년 24.9\$/b로 하락하는 기본시나리오와 이보다 86년에 20%, 87년, 88년에 모두 16%씩 하락하는 시나리오와의 차이임.

〈資料〉 DRI, European Review, Jan. 1986.

원가절감으로 기업이윤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투자가 촉진되고, ③ 인플레이션 둔화, 경상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정부는 긴축정책을 다소 완화시켜 경기부양책을 채택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등 경기회복요인이 된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非產油開途國들은 선진국의 성장가속에 따른 수출증대로 성장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油價하락은 여러모로 세금인하와 같은 효과를 낳으나,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되지 않고, 경상수지도 개선되는 등의 세금인하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油價가 5 달러 하락할 경우 OECD 선진국의 성장률은 0.5~0.8% 포인트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율은 1% 포인트 이상 하락요인이 발생하며, 非產油개도국의 成長率은 이보다 높은 1.0% 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별로는 美國의 경우 GNP 성장률이 0.8% 더 높아지며, 소비자물가상승율은 1%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石油輸入의존도가 높은 日本, 西獨, 프랑스 등의 경우는 성장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산유국인 英國은 石油收入減少로 성장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반면 產油國經濟는 石油收入減少로 0.5% 포인트 정도의 성장減速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世界交易量도 늘어날 듯

油價하락으로 세계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세계교역량도 늘어날 것이다.

油價가 배럴당 5 달러 하락시 세계교역량은 86년에 3~3.5% 신장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연간 1%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非產油開途國의 수출은 1.5%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中東산유국들의 경우, 石油수입 감소로 수입수요가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EC 지역은 역내교역비중이 높아 역외교역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油價하락이 각국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선진국의 경우 5 달러 하락시 年 280億달러의 原油輸入額이 감소하나 소비 및 투자증가에 따른 수입유발로 인해 실제 경상수지 개선효과는 이보다

줄어든 것이며, 非產油개도국은 원유수입부담 경감, 對先進國 수출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개선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國際金利하락, 달러貨 약세요인으로 작용

油價하락은 장기적으로 국제금리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油價가 하락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이 되어 국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으나, 점차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경상수지도 개선됨에 따라 資金借入 수요도 감소함으로써 국제금리를 하락시킬 것으로 보인다.

油價하락이 각국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별 경제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달러貨의 경우 ① 石油교역의 주결계통화인 달러貨에 대한 수요가 油價하락에 따라 감소하고, ② 美國보다 石油의존도가 높은 美國의 主交易 상대국들의 경우 油價하락에 따라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經常收支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 예상되므로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日本 엔貨, 西獨 마르크貨, 프랑스 프랑貨 등 石油輸入依存도가 높은 나라들의 통화에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산유국인 英國의 파운드貨 가치는 다소 하락할 것이다.

逆오일쇼크에 대한 우려도 높아

한편 油價하락이 세계경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逆오일 쇼크에 대한 우려도 있다.

逆오일 쇼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 것은 첫째, 油價하락으로 멕시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리비아 등 大債務產油國의 石油收入이 감소되어 外債償還 불이행사태에 빠질 경우, 西方銀行 등의 연쇄적인 도산을 초래, 국제금융위기가 나아가서는 세계경제질서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점, 둘째, 油價하락으로 소득이 산유국으로부터 石油消費國으로 이전될 경우 세계총수요가 오히려 감소하여 세계 경기가 다시 침체될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첫째의 경우, 油價하락에 따라 非產油개도국의 외채상환능력은 다소 향상되나, 產油開途

國의 상환능력은 크게 악화됨으로써 외채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기구와 先進國 정부, 그리고 국제상업은행들의 긴밀한 협력이 계속되고 멕시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등 채무국들이 경상수지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전반적인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의 경우, 油價하락으로 소득이 소수의 산유국으로부터 구매력이 큰 선진국들을 비롯한 다수의 石油輸入國들로 이전되므로 오히려 세계총수요는 증가, 세계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유국들이 石油收入 감소에 따라 해외투자 자산을 대거 회수할 경우 國際流動性 부족 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으나, 국제금융시장 借入의 70~80%를 차지하는 선진국과 非產油開途國이 경상수지개선으로 차입수요가 줄어들 것이어서 유동성부족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적으며, 발생하더라도 단기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도 油價하락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石油輸入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도 國際原油價의 하락은 성장촉진, 물가안정, 경상수지 흑자 전환 등을 도모할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當研究院이 시산한 바로는⁴⁾ 國際原油價가 배럴당 5달러 하락할 경우 GNP는 0.62% 포인트 상승하고, 경상수지가 11.7億달러 개선되며, 도매물가는 1.8% 포인트 하락요인이 발생하고, 실업률은 0.16%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로서도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油價하락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國際原油價 하락분을 國內原油價 인하로 반영할 때 정부가 관세나 石油安定基金 등으로 흡수하는 비율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성장 및 고용효과를 높이고 原價節減效果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선진국의 성장촉진에 따라 수입수요도 증가할 것이므로 선진국에 수출을 增大시킬 수 있는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國際石油情勢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原油를 適期 低

價로 도입함으로써 귀중한 외화를 절약해야 할 것이다.

또한 油價하락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中東諸國의 石油收入 감소에 따라 우리의 對中東建設 및 상품 수출이 감소될 것에 대비한 수출증대방안 마련이라든가, 국내성장가속에 따라 예상되는 수입유발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그동안 추진하여 온 에너지절약 노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油價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에너지수급대책 마련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 註: 1) 최근 브렌트유나 WTI의 現物油價가 배럴당 20달러 이하로 폭락하여 하락폭이 前年末比 10달러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 油種을 통털어서 볼 때 하락폭은 대체로 2~4 달러 정도임.
- 2) OECD 가중평균 원유도입단가의 경우 82년 배럴당 26.47달러에서 금년에 21.47달러, OPEC 가중평균 輸出價格(f. o. b.)의 경우 28.06달러에서 23.06달러로 하락하게 됨.
- 3) 油價하락에 따른 OPEC 石油輸出量의 변화는 무시한 숫자임.
- 4) ① 國際原油價 하락분의 50% (2.5달러 / bbl)는 관세 및 石油安定基金으로 정부가 흡수하고 나머지 50%가 國內油價인하로 반영되고, ② 國內油價인하에 따른 原價하락분은 전부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나며, ③ 油價하락에 따라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0.8%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경우임.

□ 焦 點 □

油價폭락, 先進國頂上會談의 主要의제가될 듯

原油價格의 폭락문제가 5월에 東京에서 개최되는 先進國頂上會談의 주요의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초에 열린 제2회 예비회담에서 참가각국은 原油價格의 급격한 폭락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였는데, 특히 누적되고 있는 외채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에 일치하였다.

또한 原油價格의 하락이 계속되면 日本의 무역흑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염려가 일부 국가에서 대두되어, 原油價格의 향방에 따라서는 日本에 대해 흑자를 줄이도록 요구하는 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2회 예비회담에서 통화, 누적외채, 무역, 고용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였는데, 특히 국제원유가격의 급격한 폭락의 영향, 廉價 원유시대에의 대응에 각국의 관심이 모아졌다고 한다. 原油價格의 하락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원유지불대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선진국경제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는 견해에 일치하였다.

반면에 原油價格의 폭락이 미치는 영향으로 ① 產油國의 외채문제가 한층 심각해짐으로써 선진국

경제에 새로운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② 先進國의 대체에너지개발이 정체될 염려가 있다는 것 등의 문제점을 각국 대표들이 지적하였다.

특히 베이커 美國財務長官이 작년 가을 제창한 개도국 외채문제의 해결책이 原油價格의 폭락으로 인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부 국가로부터 나왔다. 최근 原油價格 하락으로 외화수입이 연간 약 30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멕시코를 비롯, 많은 외채를 안고 있는 산유국의 收入이 감소될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86~88년의 3년간에 美國, 유럽, 日本의 민간은행이 총액 200억 달러를 각출하여 누적외채국에 신규 융자한다는 베이커構想은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예비회담에서는 原油價格 인하에 따르는 선진국의 무역흑자 증가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日本代表는 「1 배럴當 5 달러의 油價引下로 약 100억달러의 흑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작년의 대외무역흑자가 거의 500억달러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日本의 흑자감축을 요구하는 歐美 각국의 압력은 原油價格의 폭락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週刊 石油뉴스 86. 2. 13>